

## 포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 위해 연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재임



이 광 호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식약청(현 식약처)이 설립된 1996년, 용기포장과 초대 과장으로 특채 발령 받은 이후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 온 이광호 前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9월 1일부터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임하게 됐다.

이광호 교수는 “그동안 기업체,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면서 배운 지식과 실무경험을 대학에 있는 후배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나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대학원에서 식품포장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국책과제 연구사업들도 수행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이광호 교수는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교와 뉴저지 럿거스 대학에서 식품과학으로 석사와 박사(식품포장)를 취득, 1990년 귀국했다.

플라스틱 필름 생산 업체였던 (주)서통을 거쳐 식약청(현 식약처)이 설립된 1996년에 용기포장과 초대 과장으로 특채된 후 신중유해물질과장, 경인지방식약청 시험분석센터장, 식품위해평가부장,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 식품포장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전문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거치면서

식품과 포장에 대한 견해도 남다를 터.

이광호 교수는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포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부처에 해당 담당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식품포장은 그간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관련제도가 다듬어지며 발전해 왔다.

비닐 랩의 발암물질 사건, 과자봉지의 톨루엔, 컵 라면의 환경호르몬을 비롯해 최근 비스페놀-A 사건 등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식품 포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이광호 교수는 “식품 포장은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가 정착되어 왔지만 아직 우리 식문화에 맞는 포장재 유해물질의 위해평가, 제조단계에서 사전관리 등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광호 교수는 2015년도부터 국내 포장학계를 대표하는 한국포장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다.

그는 “선배들이 땀과 열정으로 일구어 온 한국포장학회의 회장으로 활동 할 예정인데, 학회가 더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안사항으로는 전임 회장님들부터 추진해 오던 한국포장학회지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아직 학계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지만 등재가 되면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하고, 그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학회 발전방안이나, 관련기업이나 정부와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광호 교수는 “우수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향후 포장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만큼 열정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교수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포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그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활용, 안전관리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포장에 있어, 산업계와 학계와 연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이광호 교수의 발전에 업계는 지금, 주목하고 있다. 